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7. Vol. 22, No. 1, 177 - 198

유도된 외상 경험이 대학생의 외현화 및 내재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탐색적 연구

박 혜 연　　장 혜 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유병률과 증상의 성차를 설명하기 위해, 외상 유형과 성역할이 대학생의 외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두 개의 실험을 진행하여, 실험실에서 유도된 외상 경험과 연구 참가자들이 자기 보고한 성역할이 외상 경험 후 외현화 및 내재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때 외상 자극은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첫 번째 연구에서는 9.11 테러 영상, 두 번째 연구에서는 국내의 무차별적 흉기난동사건 영상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외상 자극에 노출되기 이전의 개인차를 고려하기 위하여 각 증상의 기저선을 측정하여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성역할이 외상 후 개인의 외현화 및 내재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양상은 사용된 외상 자극에 따라 다소 상이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임상적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외상반응, 실험으로 유도된 외상, 성별, 성역할, 대학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혜인,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Tel: 02-760-0490, E-mail: hichang@skku.edu

www.kci.go.kr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을 경험한다. 그 중 자연재해, 성폭행 등과 같이 매우 충격적이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을 외상 사건(Traumatic Event)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외상사건 이후에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정신장애를 진단받기도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외상 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이다. PTSD의 증상은 외상사건에 대한 재경험, 사건과 관련된 단서와 상황의 회피, 사건 이후의 생각과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 과민성과 사소한 자극에 쉽게 놀라는 증상을 포함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러한 증상들은 개인의 기분과 심리상태는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들은 대인관계를 비롯한 여러 기능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PTSD의 발병 및 증상의 심각도에 기여하는 요인을 탐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PTSD의 1년 유병률과 평생 유병률은 각각 3.5%, 8.7%이며(APA, 2013), 여성과 남성의 유병률에 차이가 있다. 여성의 평생 유병률은 11%, 남성은 6%로(Norris, Perilla, Ibanez, & Murphy, 2001; Norris, 1992), 여성이 PTSD 진단을 받을 확률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다.

이러한 PTSD의 유병률의 성차를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로 종종 언급되는 것은 개인이 경험한 외상 유형의 차이(Resnick, Kilpatrick, Dansky, Saunders, & Best, 1993)이다. 남성은 사고, 신체적 폭행, 전투, 화재 등의 외상을 자주 경험하는 반면, 여성은 성폭행이나 가정폭력, 아동기의 성적 학대 및 방임을 빈번하게 경험해, 성별에 따라 주로 경험하는 외상의 유형에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Ghafooria, Barragana, & Palinkas, 2013; Kessler, Sonnega, Bromet, Hughes, & Nelson, 1995; Tolin & Foa, 2006).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나 자연재해와 같은 외상에 비해 신체적, 성적 학대와 같은 대인관계 외상은 PTSD를 비롯한 심리적 어려움과 더 관련성이 높다(Breslau, Chilcoat, Kessler, & Davis, 1999; Creamer, Burgess, & McFarlane, 2001; Kilpatrick, Acierno, Resnick, Saunders, & Best, 1997). 이는 대인관계 외상이 생존자의 타인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키고(Janoff-Bulman, 1992), 외상과 관련된 부적 정서를 증대시키기 때문(Creamer et al., 2001)이라는 설명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PTSD의 유병률이 여성에서 더 높은 이유는 여성이 높은 PTSD 위험과 연관된 대인관계 내 폭행, 강간과 같은 외상을 남성보다 더 자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Breslau, 2009; Kessler, 2000).

그러나 외상 유형의 차이는 PTSD의 유병률의 성차를 부분적으로만 설명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예를 들어 외상유형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도 PTSD의 유병률이 여성에서 더 높았다는 결과(Breslau, Chilcoat, Kessler, Peterson, & Lucia, 1999), 동일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도 남성보다 여성의 PTSD 위험과 증상 심각도가 높았다는 결과(Luxton, Skopp, & Maguen, 2010; Tolin & Foa, 2006) 등은 외상 유형의 차이만으로는 PTSD의 성차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성역할이 PTSD의 성차에 기여할 것으로 제안된 바 있으나(McLean & Anderson, 2009; Tolin & Foa, 2006), 경험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www.kci.go.kr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특징을 성역할이라고 하며(Block, 1983), 이는 생물학적 성별과는 달리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다. 여성성(femininity)은 부드러움, 공감과 관련 있는 반면, 남성성(masculinity)은 자신감과 능숙함과 연관된다. 성역할이라는 개념 자체가 남성과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보통 여성들은 여성적이며 남성들은 남성적인 성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되지만, 성별과 성역할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여성이라도 스스로가 남성적이라고 느낄 수 있으며, 남성이라도 자신을 여성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이 스스로 지각하는 성역할은 개인의 기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Bem, 1974), 정신건강 역시 예외는 아니다(Erden-İmamoğlu, 2013; Lefkowitz & Zeldow, 2006). 개인들은 보통 성역할과 일관된 방향으로 사회화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여성들이 문제를 내재화(internalize)하고 남성들은 외현화(externalize)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주로 호소하는 심리적 문제의 발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고(Nolen- Hoeksema, 1994), 성역할과 정신건강을 살펴본 기존의 경험연구들이 이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여성성이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을 비롯한 내재화 증상이 높았으며(염순교, 이종화, 2014; 한인영, 홍선희, 2011; McLean & Hope, 2010; Palapattu, Kingery, & Ginsberg, 2006), 남성성이 높은 경우 내재화 증상은 낮았지만 외현화 문제의 위험과 공격성, 분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nney, Smith, & Donzella, 2001; Lengua & Stormshak, 2000; Reidy, Sloan, & Zeichner, 2009).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성역할에 따른 취약한 심리적 문제가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주요 증상이 내재화 증상인 PTSD가 여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McLean & Anderson, 2009; Tolin & Foa, 2006). 그러나 아직까지 성역할과 PTSD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성역할을 질문지 등의 측정도구를 통해 직접 측정하지 않고, 직업과 같은 정보로 간접적으로 유추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인과 군, 경찰의 PTSD 유병률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인구에서는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군과 경찰에서는 유병률에 성차가 없었다.(Pole et al., 2001; Sutker, Davis, Uddo, & Ditta, 1995). 남성적 성역할이 우세한 군과 경찰에서 여성들은 남성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남성 중심적인 규범을 따르며 조직에 적응하기 때문에(Kurpius & Lucart, 2000; Metcalfe & Dick, 2002; Sasson‐Levy, 2003), 일반여성들에 비해 남성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군인, 여성경찰들의 PTSD의 유병률이 남성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은 외상 후 반응에 성역할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늠케 한다. 경찰 대상의 연구에서도 PTSD 증상에서 성차가 없었고(Pole et al., 2001), 군인들이 군사작전 후에 보이는 심리적 고통(부정적인 기분 상태, 신체적 불만, PTSD)에도 성차가 없었다(Sutker et al., 1995). 또한 여성경찰과 외상을 경험한 일반여성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여성경찰의 정서적 고통과 PTSD 증상 모두 일반여성보다 낮았다(Lilly, Pole, Best, Metzler, & Marmar, 2009).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생물학적 성별과는 별개로 사회

www.kci.go.kr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역할이 외상 후 개인의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들 연구는 질문지 등을 이용해 성역할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직업 등의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성역할을 추측했다

한편, 성역할이 PTSD의 성차에 주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상 이후의 내재화 증상뿐만 아니라 외현화 증상 또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남성성이 높으면 외현화 증상에 취약하다는 결과(Kinney et al., 2001; Lengua & Stormshak, 2000; Reidy et al., 2009)를 감안하면, PTSD 증상을 중심으로 한 내재화 증상의 연구는 남성성이 높은 개인들의 외상 후 반응을 탐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Mendelsohn과 Sewell(2004)은 PTSD 증상을 보이는 남성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외상을 경험한 남성들이 PTSD가 아닌 다른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개정된 DSM-5에서도 PTSD의 진단기준에 분노폭발,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APA, 2013), 외상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외상 이후의 외현화 증상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나, 대학생과 군인의 외현화 증상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 외상을 경험한 군인들은 공격, 폭력사건을 저지를 확률이 외상을 경험한 일반인보다 두 배나 높았고, PTSD 증상이 없는 남성 대학생들보다 PTSD 증상이 있는 남성 대학생들의 공격성, 분노, 폭력성, 적개심이 더 높았다(Jakupcak & Tull, 2005). 연구자들은 이것이 외상을 경험한 남성들은 분노와 공격성을 외부로 표출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성역할이 그 심각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PTSD가 있는 남자군인들과 다른 정신장애가 있는 군인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PTSD가 있는 군인들이 더 공격적이고 과민했으며, 언어적 적개심이 높았다(Castillo, Baca, Conforti, Qualls, & Fallon, 2002). 이러한 외상 후 외현화 증상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과 DSM의 개정 내용을 고려하면 PTSD의 성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재화 증상뿐 아니라 외현화 증상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역할을 직접 측정하고 외상 이후의 다양한 반응을 고려한 연구는 드물다. 예외적으로 한 연구가 성역할을 직접 측정하고 외상 이후의 내재화와 외현화 증상 모두 고려하였다(박혜연, 장혜인, 2015). 연구 결과 성별과 성역할이 상호작용하여 외상 이후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성이 높은 여성만 외상 이후에 높은 우울을 보였으며, 여성은 여성성이 높고 남성성이 낮을수록 적개심이 높아졌다. 즉 성역할이 외상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것으로,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여성들이 실험에 사용된 영상에 더 몰입하기 쉬웠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자극을 사용하여 영상의 내용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외상 후 반응 연구에서 외상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성역할이 여성

www.kci.go.kr

의 PTSD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성별에 따라 주로 경험하는 외상의 유형이 다르며 외상의 유형이 외상 이후의 반응에 (Resnick et al., 1993; Rothbaum, Foa, Riggs, Murdock, & Walsh, 1992)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외상의 내용이 성역할과 외상반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박혜연, 장혜인, 2015)을 고려하면, 외상 이후의 반응을 살펴볼 때 단순히 성역할뿐만 아니라 외상의 유형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성폭행 후에 PTSD를 진단받은 여성들과 전투에 참가했던 재향군인들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Castillo et al., 2002). 이 연구에서 PTSD가 있는 여성보다 PTSD가 있는 남성의 공격성과 간접적 적개심, 자극과민성, 언어적 적개심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외상의 유형 즉 참전군인이 경험한 전투외상이 높은 외현적 공격성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PTSD가 있는 여성들과 PTSD 외의 다른 정신장애를 진단받은 참전군인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는, 적개심과 공격성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여성의 분개심과 의심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다른 정신장애가 있는 남성들과 PTSD가 있는 남성들을 비교했을 때는 PTSD가 있는 남성의 공격성과 자극과민성, 언어적 적개심이 유의하게 높았다. 즉 다른 정신장애가 있는 남성들은 PTSD가 있는 여성과는 분노의 인지적 표현에서, 그리고 남성과는 행동적 표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PTSD 환자 내에서도 분노의 성차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성은 분노를 외현화하고 여성은 분노를 내재화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차이는 성역할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외상의 유형과 성역할 모두 PTSD의 성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성별과 외상 유형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Hetzel-Riggin과 Roby(2013)는 여러 종류의 외상을 경험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외상 유형과 성별이 PTS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외상 유형 중에서는 대인관계 내에서의 폭행을 경험한 생존자들의 PTSD 증상수준이 가장 높았고, 성별 중에서는 여성의 PTSD 위험이 높았다. 성별과 외상 유형 간 상호작용은 없었으나, 이 결과는 여성의 PTSD 위험이 높은 것은 단순히 위험한 외상을 더 많이 경험해서가 아니며, 성별과 외상의 유형 모두 외상 후 증상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 개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외상의 유형과 성별 모두 외상 이후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성역할이 아니라 성별과 외상 유형만을 살펴보았으므로 성역할과 외상 유형이 외상 이후의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또한 외상반응에 외현화와 내재화 증상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한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성역할에 따른 외상 후 반응양상을 살피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상의 유형과 성역할이 외상 이후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외상의 유형과 성역할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이론적 측면과 임상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일 성역할에 따라서 외상 이후의 증상이 달라지고 외상의 유형이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성역할과 외상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이 달라질 수

www.kci.go.kr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사지를 이용하여 성역할을 직접 측정하고, 실험적으로 외상을 유도하여 연구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외상 유형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외상 경험 유도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참가자들에게 외상과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Lepore, Ragan, & Jones, 2000; Schmaus, Laubmeier, Boquiren, Herzer, & Zakowski, 2008; Sells & Martin, 2001). 예를 들면, Schmaus 등(200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7분가량의 홀로코스트 관련 영상을 시청하게 한 후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Lepore 등(2000)의 연구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적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홀로코스트 관련 영상 시청 후에 스트레스가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Sells와 Martin(2001)의 연구에서도 전쟁에서 친구를 잃은 베트남 참전 군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학부생들에게 보여준 후에 참가자들의 부정적 감정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들은 실험실에서 외상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실제 외상을 경험한 것과 유사한 심리적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외상을 경험하지 않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외상 경험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사용된 홀로코스트 혹은 베트남전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들은 미디어를 통해 많이 노출되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연구 참가자들과 심리적 거리가 멀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상을 유도할 수 있는 자극을 찾기 위하여 두 개의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들은 각 영상이 심리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외상의 유형과 성역할이 외상 이후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두 연구는 참가자와 실험에 사용된 영상을 제외하고는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분석방법이 모두 동일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각 실험을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두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실험에 사용된 영상의 차이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나아가 실험 자극이 외상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지에 관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상 유형과 성역할이 외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성성은 내재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남성성은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여성성과 남성성이 각각 실험적으로 유도된 외상 경험 후 개인의 내재화 증상과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때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성역할을 직접 측정하고 외상 반응에 내재화 증상과 외현화 증상 모두를 포함하였고, 외상 경험 전 증상을 측정하여 기저선을 통제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역할에 따라 외상 후 반응이 달라지는가? 구체적으로는, 여성성이 높을수록 외상 후 내재화 증상이 높은가? 남성성이 높을수록 외상 후 외현화 증상이 높은가?

연구문제 2. 실험적으로 유도된 외상 유형에 따라 외상 후 반응이 다른가?

www.kci.go.kr

연 구 1

연구1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에게 외상과 유사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유도된 외상이 개인의 외현화 및 내재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참여자 및 자료수집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심리학과 교양 수업을 듣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 한 회기 당 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실험에 참여한 후 실험 참가 점수를 받았다. 총 참여 학생의 수는 58명이었으며, 그 중 32명이 여성(55%), 26명이 남성이었다(45%).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3.1세(*SD*=3.15)였다.

실험도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Lepore et al., 2000; Schmaus et al., 2008; Sells & Martin, 2001), 한국 대학생들에게 외상경험과 유사한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영상을 찾아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영상의 내용과 길이를 구성하였다.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사건들은 이미 학생들에게 많이 노출되었으므로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 해외에서 비교적 근래에 발생한 911 테러 사건에 관한 영상을 사용하였다. 영상은 911 테러 사건 당시의 현장을 설명하는 뉴스 클립과 그 당시의 상황을 담은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영상에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영상의 길이는 선행연구(Schmaus et al., 2008)와 일관되게 7분가량이었다. 영상의 언어는 영어였으며, 한글자막이 포함되었다. 윤리적인 이유에서 참혹하거나 끔찍한 장면은 모두 제외되었다.

실험절차

참가자들에게 연구를 소개한 후, 연구 참가 동의서를 배부하였다. 참가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 참가 동의서를 읽었으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은 후에 응답하도록 지시되었다. 연구 참가 동의서에는 언제든지 실험을 그만둘 수 있고, 그만두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그 후 참가자들은 성역할 질문지와 각 증상의 기저선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했다. 그 후 참가자들은 911 테러 사건에 관한 영상을 시청했는데, 영상을 시청하기 이전에 영상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실험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재차 안내하였다. 영상이 종료된 후에 참가자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취했으며, 그 후 증상에 관한 질문지를 다시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실험 이후에 심리적 불편감을 겪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하였다. 참가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센터에 관한 정보와 연락처를 제공받았으며, 실험에 관련된 질문이나 건의가 있는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실험이 종료되었다.

www.kci.go.kr

측정도구

성역할 정체감 유형 척도(Korea Sex-Role Inventory: KSRI). 성역할을 측정하기 위하여, 원 척도인 BSRI(Bem Sex-Role Inventory; Bem, 1974)를 번안 및 표준화한 한국 성역할 정체감 척도(KSRI; 정진경, 1990)를 사용하였다. 총 60개의 문항(각 20개의 여성성, 남성성, 중립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7점: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여성성은 "부드럽다", "감정이 풍부하다", 남성성은 "모험적이다", "자신감이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며, 중립문항은 "부지런하다", "진지하다" 등의 문항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바람직한 정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여성성과 남성성 모두 높은 경우에는 양성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립문항을 제외한 여성성과 남성성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α는 여성성 .84, 남성성 .91, 중립문항 .75였다(정진경, 1990).

한국판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 Depression scale: CES-D). 우울 척도(CES-D; Radloff, 1977)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겸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의 우울 증상을 측정하며, 무력감, 우울한 기분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이 척도의 문항은 총 20개이며, 4점 척도(0점: 극히 드물다~3점: 대부분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였다(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Y). 참가자들의 불안과 걱정, 긴장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STAI; Spielberger, 1983)의 한국어판(한덕웅, 이장호, 전겸구, 1996)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40문항(상태불안 20문항, 특성불안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로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검사는 불안의 요인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검사이다. 검사에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문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외상 영상의 시청 후에 변화하는 불안이었으므로, 상태불안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상태불안의 내적 일치도는 .92였다(한덕웅 외, 1996).

Buss-Perry 공격성 검사(Buss-Perry Aggression Questionnaire: BPAQ). Buss-Perry 공격성 검사(BPAQ; Buss & Perry, 1992)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의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총 29문항의 이 검사는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아주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이며,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 적개심의 4개 차원을 측정한다. 이 검사의 내적 일치도는 .89이었으며, 4개 차원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신체적 공격성 .85, 언어적 공격성 .72, 분노 .83, 적개심 .77이었다(Buss & Perry, 1992).

www.kci.go.kr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참가자들의 분노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 Spielberger, 1988)의 한국판(STAXI-K; 한덕웅 외, 1998)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1점: 거의 전혀 그렇지 않다~4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로 평정하는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에는 여러 가지 하위척도가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은 영상을 본 이후 변화하는 분노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상태분노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상태 분노의 내적 일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Spielberger, 1988).

분석방법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과 기술 통계치를 확인하였으며, 실험 조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증상의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후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외상반응에 대한 성역할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실험 전 증상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증상의 사전점수를 분석의 1단계에 포함하였고, 2단계에서는 성역할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포함하여 외상반응에 대한 성역할(남성성, 여성성)과 성별의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결 과

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 통계치

표 1에 각 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분석의 결과를 제시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 통계치

	1.	성역할		우울		불안		공격성		분노	
	성별	2.여성성	3.남성성	4. 전	5. 후	6. 전	7. 후	8. 전	9. 후	10. 전	11. 후
1.	--										
2.	-.09	--									
3.	-.05	.20	--								
4.	.36**	.25	-.16	--							
5.	.29*	.25	-.01	.30*	--						
6.	.23	-.17	-.26*	.59**	.01	--					
7.	.08	-.03	-.23	.10	.66**	.14	--				
8.	.13	-.16	-.01	.23	.01*	.23	-.09	--			
9.	.16	-.16	.04	.19	.44**	.10	.38**	.60**	--		
10.	.19	.12	.04	.45**	-.07	.46**	-.11	.22	.08	--	
11.	.18	.01	.05	.01	.58**	-.05	.51**	-.10	.35**	-.10	--
M	--	4.58	4.49	17.98	23.66	40.17	54.91	66.36	69.97	11.98	17.90
SD	--	.71	.74	5.92	9.28	9.21	12.08	13.14	14.83	3.23	7.76

주. 성별 = 1 남성, 2 여성; 전 = 외상 영상 시청 전의 점수, 후 = 외상 영상 시청 후의 점수.
*$p < .05$, **$p < .01$.

www.kci.go.kr

하였다. 여성성은 그 어떤 변인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반면, 남성성은 불안 사전 점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r=-.26, p<.05, 남성의 사전 불안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성별은 남성성, 여성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나, 우울 사전점수, r=.36, p<.01, 우울 사후점수, r=.29, p<.01, 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여, 여성일수록 우울 증상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외상 영상의 효과 검증

실험 조작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영상 시청 전후의 증상점수의 평균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모든 증상의 영상 시청 전의 점수보다 후의 점수가 높아져, 외상 시청 후 참가자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점수가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t>-7.97, p<.01.

표 2. 영상 시청 전후의 증상 점수(N=43)

변인	평균(표준편차)		t
	전	후	
우울(CES-D)	35.44(6.17)	38.21(7.18)	-3.08**
불안(STAI-S)	41.84(10.97)	54.07(12.49)	-5.85**
공격성(BPAQ)	60.86(12.53)	63.77(17.81)	-1.36
분노(STAXI-S)	11.26(2.51)	17.09(7.54)	-5.02**

**p < .01.

성역할에 따른 우울의 변화

성역할이 영상을 시청한 이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성별이 사후 우울 점수를 예측하여, 여성의 사후 우울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β=.25, p=.09. 또한 여성성이 사후 우울 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하여, 여성성이 높은 개인의 사후 우울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β=.24, p=.08.

성역할에 따른 불안의 변화

성역할이 영상을 시청한 이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표 3. 우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외상 후 우울				
	B	β	t	F	$\triangle R^2$
1단계				4.92*	.65*
사전 우울	.44	.29*	2.22		
2단계				3.46*	.12†
사전 우울	.22	.14	1.01		
성별	2.16	.24†	1.75		
여성성	3.01	.24†	1.79		

주. 성별 = 1 남성, 2 여성.

† p < .10, *p < .05.

www.kci.go.kr

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 불안 점수, 성별, 여성성 모두 사후 불안 점수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성역할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

성역할이 영상을 시청한 이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 공격성만이 사후 공격성을 예측해, 영상을 시청하기 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영상을 시청한 후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59, p=.00. 성별과 남성성은 영상 시청 이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성역할에 따른 분노의 변화

성역할이 영상을 시청한 이후의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사전 분노 점수, 성별, 남성성 모두 사후 분노 점수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논 의

연구1에서는 911 테러 영상을 이용하여 외상경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외상 후 반응에 개인의 성역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여성은 영상을 본 이후에 남성보다 더 우울해지는 경향성을 보여, 여성이 외상 이후에 내재화 증상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들(McLean & Anderson, 2009; Tolin & Foa, 2006)과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여성성이 높을수록 영상 시청 이후에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성별과 관계없이 여성성이 외상을 경험한 이후의 내재화 증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들과도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연구1에서 실험실에서 외상이 유도될 수 있으며, 여성성이 외상 이후 내재화 증상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성성과 외현화 증상에 관련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실험에 사용되었던 영상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영상의 내용은 911 테러를 목격한 사람들이 울거나 공격에 의해 압도된 모습을 주로 담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적으로 남성성과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성이 높은 개인은 영상에 몰입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또한 영상에 포함된 외상 자극의 내용이 공포나 슬픔 등 내재화 증상을 유도하기에 더 적절하고, 분노나 공격성 등 외현화 증상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실험에서 사용된 영상은 미국에서 발생하였던 911 테러 사건의 장면을 편집한 것으로 영상의 언어는 영어였고, 등장인물들이 모두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국내 가용한 실험 자극을 가지고 반복 연구를 수행해볼 필요가 있었다.

연 구 2

연구2에서는 연구1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험적으로 외상을 유도하기 위한 영상 자극을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언어가 한국어이며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영상을 사용하였다.

www.kci.go.kr

방 법

참여자 및 자료수집

연구 참가자들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심리학과 교양 수업을 듣는 학부생이었으며, 학생들은 실험 참여 후에 실험 참가 점수를 받았다. 4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25명이 여성(58%), 18명이 남성(42%)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8세 (*SD*=2.36)였다.

실험도구

연구1에서 사용된 영상은 참가자들의 슬픔이나 공포와 같이 내재화 증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연구2에서는 분노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사용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연구2에서는 2012년 발생한 여의도 흉기 난동 사건에 관한 영상을 사용하였다. 사건의 가해자인 남성은 여의도에서 전 직장동료들과 행인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한 시간 후에 체포되었는데,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영상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영상은 사건 당시의 CCTV, 현장사진과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가해자에게서 도망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상의 길이는 약 2분가량으로, 한국어로 구성되었으며 자막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1과는 달리 이 사건에 관련된 영상 자체가 매우 적었으며, 특히 그 중 몇몇 영상은 실험에 사용하기 적합지 않아 제외되었기 때문에 연구1과는 달리 영상의 길이가 짧았다. 연구1과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끔찍하거나 잔인한 장면은 모두 제외되었다.

실험절차

실험절차는 연구1과 같았다. 다만 여의도 사건은 911 테러 사건처럼 널리 알려져 있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실험 종료 시에 사건의 가해자는 검거되었고 피해자들은 적절한 조치를 받았음을 알려주어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을 공지하였다.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연구1과 같았다.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연구1과 같았다.

결 과

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 통계치

표 4에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성성은 우울 사전점수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r=.33, p<.05, 남성성은 공격성 사후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r=.40, p<.01. 성별은 남성성, 여성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나, 우울 사전점수, r=.45, p<.01, 우울 사후점수, r=.37, p<.05, 불안 사전점수, r=.37, p<.05, 불안 사후점수, r=.41, p<.01, 와는 유의한 상관을

www.kci.go.kr

표 4. 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 통계치

	1. 성별	성역할		우울		불안		공격성		분노	
		2. 여성성	3. 남성성	4. 전	5. 후	6. 전	7. 후	8. 전	9. 후	10. 전	11. 후
1.	--										
2.	-.06	--									
3.	-.22	.18	--								
4.	.43**	.33*	-.03	--							
5.	.37*	.14	-.07	.61**	--						
6.	.37*	.06	-.09	.52**	.40**	--					
7.	.41**	.17	.03	.44**	.52**	.32*	--				
8.	.20	-.21	.21	.38**	.38*	.28	.26	--			
9.	.19	.05	.41**	.45**	.29	.23	.54**	.62**	--		
10.	-.07	-.18	.06	.12	.13	.29	-.07	.17	.06	--	
11.	.24	.07	.19	.39**	.38*	.20	.77**	.32*	.70**	.13	--
M	--	4.53	4.20	35.44	38.21	41.84	54.07	60.86	63.77	11.26	17.09
SD	--	.70	.76	6.17	7.18	10.97	12.49	12.83	17.81	2.51	7.54

주. 성별 = 1 남성, 2 여성; 전 = 외상 영상 시청 전의 점수, 후 = 외상 영상 시청 후의 점수.
*$p < .05$, **$p < .01$.

보여, 여성일수록 내재화 증상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외상 영상의 효과 검증

실험 조작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영상 시청 전후의 증상점수의 평균차이를 비교하였다. 시간을 집단 변인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격성을 제외한, t=1.36, p=.18, 모든 증상 점수가 영상 시청 전보다 후에 높아져, 실험에 사용한 영상이 참가자들에게 공격성을 제외한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3.08, p<.01.

성역할에 따른 우울의 변화

성역할이 영상을 시청한 이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 우울점수가 영상을 본 후의 우울을 예측했으나, β=.58, p=.00, 여성성과 성별은 사후 우울점수를 예측하지 못했다.

성역할에 따른 불안의 변화

성역할이 영상을 시청한 이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만이 사후 불안점수를 예측해, 여성들만이 영상을 본 후에 불안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β=.35, p=.03. 이와 달리 여

www.kci.go.kr

표 5. 공격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외상 후 공격성				
	B	β	*t*	*F*	$\triangle R^2$
1단계				25.53**	.37**
사전 공격성	.88	.62**	5.05		
2단계				12.36**	.45**
사전 공격성	.74	.52**	4.26		
성별	5.61	.18	1.29		
남성성	7.89	.34*	2.76		

*$p < .05$, **$p < .01$.

성성은 사후 불안 점수를 예측하지 못했다.

성역할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

성역할이 영상을 시청한 이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5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 공격성이 사후 공격성을 예측하였다, β =.52, p=.00. 또한 남성성이 사후 공격성을 예측하여, 남성성이 높을수록 영상을 시청한 후의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4, p=.01. 성별은 공격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성역할에 따른 분노의 변화

성역할이 영상을 시청한 이후의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이 사후 분노를 예측해, 여성이 영상을 시청한 후에 분노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0, p=.05. 남성성은 사후 분노를 예측하지 못했다.

논 의

연구2에서는 여의도 흉기난동사건의 영상을 사용하여 실험적으로 외상 경험을 유도하고, 성역할이 외상 이후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남성성이 높은 개인의 공격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성이 높을수록 외상 이후에 외현화 증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Jakupcak & Tull, 2005; Mendelsohn & Sewell, 2004). 그러나 여성성은 내재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여성성이 외상 이후의 내재화 증상을 높인다는 기존의 결과들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Norris et al., 2001; Valdez & Lilly, 2014). 한 가지 예상치 못했던 결과는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 여성의 불안은 물론, 분노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여성이 외상 이후의 내재화 증상에 취약하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달리, 연구2에서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 여성의 불안뿐만 아니라 분노가 높아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영상의 내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영상 안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들은 일방적인 피해자의 모습으로 제

www.kci.go.kr

시된 반면 남성들은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제지하고 사건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영상이 남성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했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특히 가해자가 흉기를 휘둘렀던 대상은 직장동료였던 남자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여성이었다. 이와 같이 가해자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도 영상 시청 후 여성의 분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논 의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외상 자극을 사용한 두 개의 연구를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상 유형에 따른 외상 이후 반응의 차이와, 성역할과 외상 이후 반응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연구1에서는 여성성이 높을수록 영상 시청 이후의 우울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즉 성역할이 여성적일수록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 내재화 증상이 높아졌으며, 이는 여성성이 외상을 경험한 이후의 내재화 증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들과 일관된다(Norris et al., 2001; Valdez & Lilly, 2014). 그러나 외현화 증상인 분노와 공격성은 남성성에 따라 변화하지 않아, 남성성이 높을수록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 외현화 문제가 많아질 수 있다는 기존의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Jakupcak & Tull, 2005; Mendelsohn & Sewell, 2004).

연구2에서는 남성성이 높을수록 외상 경험 후 공격성이 높아져, 기존의 주장들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Jakupcak & Tull, 2005; Mendelsohn & Sewell, 2004). 그러나 여성성은 내재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여성성이 외상 이후의 내재화 증상을 높인다는 기존의 결과들과는 상반되게 나타났다(Norris et al., 2001; Valdez & Lilly, 2014). 특히 연구2에서는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 여성의 분노가 높아지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만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던 영상의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 결과가 기존의 이론적 제안과 모두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보고된 PTSD 유병률의 성차가 부분적으로는 성역할에 기인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역할이 외상 이후의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직업 정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본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Lilly et al., 2009; Pole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검사지로 개인의 성역할을 측정하여 성역할과 외상 후 반응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PTSD의 유병률이 다른 것은 성별에 따라 경험하는 외상 사건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고려하면(Resnick et al., 1993; Rothbaum et al., 1992), 외상의 유형을 통제한 후에 성역할이 개인의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외상사건의 유형을 통제하지 않은 채, 성역할이 개인의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반면 본 연구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유형의 외상을 유도함으로써, 외상 이후 증상의 성차가 외상의 유형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동일한 외상 경험을 하더라도 성역할에 의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외상 영상을 사용함으로써

www.kci.go.kr

외상의 내용에 따라 외상 이후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두 연구 모두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외상과 유사한 경험이 유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영상의 유형에 따라 반응의 양상이 달랐다. 연구1에서는 여성과 여성성이 높은 개인들의 우울이 높아져 내재화 증상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 반면, 연구2에서는 남성성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져 외현화 증상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연구2는 여성들의 불안과 분노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의 유형에 따라 외상 이후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Castillo et al., 2002)과 일관된다. 예를 들어, Castillo 등(2002)의 연구자들은 전투외상이 개인의 공격성을 외부로 표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남성군인들이 전투 이후에 외현적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연구1에 사용된 911 테러 영상은 전반적으로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영상 속의 사람들은 비행기가 빌딩에 충돌하는 광경을 보고 탄식하거나 울음을 터뜨렸으며, 사건에 압도되어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에 포함된 뉴스 영상들도 소식을 전하며 매우 가라앉은 분위기였고, 배경음악 또한 슬픈 분위기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러한 영상의 내용과 분위기가 참가자들 특히 여성성이 높은 참가자들과 여성들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구2에 사용된 여의도 흉기 난동 영상은 분위기가 매우 급박하고 당혹스러웠다. 가해자는 전 직장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에, 그를 제지하려는 남성들을 피하면서 지나가는 여성들만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영상에는 여성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사건 현장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영상의 내용이 슬픔이나 불안보다는 참가자들의 공격성과 분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단일 자극만을 사용하여 외상을 유도한 것(Lepore et al., 2000; Schmaus et al., 2008; Sells & Martin, 2001)과 달리,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영상 자극을 사용하여 외상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 외상 이후의 반응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 역시 단일한 실험 내에서 두 가지 영상을 포함하여 직접 그 결과를 비교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외상 자극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작하고 그 특성 또한 제 3자 보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외상 후 반응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외상 자극의 어떤 특성에 기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주로 내재화 증상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PTSD 연구들과는 달리 외상 이후의 외현화 증상에도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은 남성성이 외상 이후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안하였고(Castillo et al., 2002; Jakupcak & Tull, 2005), DSM-5에서도 PTSD의 새로운 진단기준은 외현화 증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포함하였다(APA, 2013). 본 연구 결과 역시 이와 일관되게 외상 후 외현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며, 외현화 문제에 특히 취약한 성역할이나 외상 유형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해보면, 외상 생존자들에 대한 치료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성역할과 외상 유형에 따라 외상 후 반응이 다르다는

www.kci.go.kr

것은 곧, 성역할 검사지와 개인이 경험한 외상의 특성이 개인이 보일 수 있는 문제의 양상을 예측하는 선별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는 외상 생존자들에 대한 치료를 계획할 때,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둘 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투 외상을 경험한 남성성이 높은 개인에게는, 단순한 PTSD 치료법보다는 외현화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험실 상황에서 외상을 유도하여 유의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 외상과 관련된 실험 연구는 비교적 드물었으며, 거의 모두 해외연구였다(Lepore et al., 2000; Schmaus et al., 2008; Sells & Martin, 2001).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었던 실험 재료들은 홀로코스트 등 한국 대학생들과는 다소 심리적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실험적으로 외상 경험을 유도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래 연구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활용해 외상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연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외상 유형에 따른 외상 후 반응의 차이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요인에 대한 연구를 계속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PTSD에 취약한 개인을 선별하고, 증상을 예측하며, 조기에 치료적 개입을 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두 연구 모두 표본의 크기가 작았다. 본 연구에 포함된 두 연구의 표본 모두 60명을 넘지 못했는데, 이는 성역할이 외상 이후의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탐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크기였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사용하여 본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모든 증상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편향적으로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연구1에서 남성성이 높은 참가자들은 영상을 시청한 후에 우울이나 불안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증상 수준을 축소하여 보고했을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여성 혹은 여성성이 높은 참가자들은 내재화 증상을 과장하여 보고했을 수 있다. 외현화 증상 역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는 속성이며, 실제로 몇몇 연구자들이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공격성 질문지인 BPAQ와 분노 질문지인 STAXI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왜곡되어 보고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Buss & Perry, 1992; McEwan, Davis, MacKenzie, & Mullen, 2009).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영상 시청 이후의 증상을 측정할 때, 자기보고를 비롯하여 생리적 반응, 행동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 번째로, 실험 패러다임 자체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실험이 얼마나 실제와 유사한 외상 이후의 반응을 잘 유도하는지에 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상 자극을 사용한 연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타당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실험 연구를 통하여 외상 반응을 살펴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www.kci.go.kr

마지막으로 실험 설계상의 한계가 있다. 연구1과 연구2 모두에서 동일한 증상을 영상 시청 이전과 이후에 측정하였는데, 두 번의 측정 간에 시간간격이 10~15분으로 짧았다. PTSD의 증상은 외상 직후에만 나타나지 않으며, 시간이 흐른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외상 '직후'라고 할지라도 본 연구에서처럼 짧은 시간에 따른 급격한 변화는 아닐 확률이 높다. 따라서 실제 현실에서 외상 경험 후 장시간의 시간 경과에 따라 일어나는 증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었다. 비록 *t*-검증 결과 두 연구 모두에서 영상을 시청하기 전과 후의 증상이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생태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긴 시간 간격을 두고 증상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앞서 언급했듯이 두 실험은 영상의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같았으나, 각각 독립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통제하지 못한 다른 변인들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외상 유형의 효과를 보다 엄격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실험 내에서 각기 다른 내용의 영상을 본 참가자들의 반응 비교하여 영상 내용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혜연, 장혜인 (2015). 대학생의 성역할과 외상 후 반응의 관계: 성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2), 181-203.

염순교, 이종화 (2014).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 대한보건연구, 40(1), 89-98.

전겸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 76.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5(1), 82-92.

한덕웅, 이장호, 전겸구 (1996).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 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

한덕웅, 이장호, 전겸구 (1998).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STAXI-K).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18-32.

한인영, 홍선희 (2011). 여성의 성역할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477-49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Block, J. H. (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1335- 1354.

Breslau, N. (2009). The epidemiology of trauma, PTSD, and other posttrauma disorders. *Trauma, Violence, & Abuse, 10*(3), 198-210.

Breslau, N., Chilcoat, H. D., Kessler, R. C., & Davis, G. C. (1999). Previous exposure to trauma and PTSD effects of subsequent trauma: results from the Detroit Area Survey of Traum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6), 902-907.

Breslau, N., Chilcoat, H. D., Kessler, R. C., Peterson, E. L., & Lucia, V. C. (1999). Vulnerability to assaultive violence: further specification of the sex difference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ological medicine, 29*(04), 813-821.

www.kci.go.kr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

Castillo, D. T., Baca, J. C. D., Conforti, K., Qualls, C., & Fallon, S. K. (2002). Anger in PTSD: General psychiatric and gender differences on the BDHI. *Journal of Loss & Trauma, 7*(2), 119-128.

Creamer, M., Burgess, P., & McFarlane, A. C. (2001).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indings from the Australian National Survey of Mental Health and Well-being. *Psychological medicine, 31*(7), 1237-1247.

Erden-İmamoğlu, S. (2013). Gender role and social identifications: the two major factors to shape Turkish women. *Education, 134*(1), 82-93.

Ghafoori, B., Barragan, B., & Palinkas, L. (2013). Gender disparities in the mental health of urban survivors of trauma.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2*(9), 950-963.

Hetzel-Riggin, M. D., & Roby, R. P. (2013). Trauma type and gender effects on PTSD, general distress, and peritraumatic dissociation. *Journal of Loss and Trauma, 18*(1), 41-53.

Jakupcak, M., & Tull, M. T. (2005). Effects of trauma exposure on anger, aggression, and violence in a nonclinical sample of men. *Violence and Victims, 20*(5), 589-598.

Janoff-Bulman, R. (1992). *Shattered Assumptions: Towards a New Psychology of Trauma*. New York: Free Press.

Kessler, R. C. (2000).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burden to the individual and to society.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1*(5), 4-14

Kessler, R. C., Sonnega, A., Bromet, E., Hughes, M., & Nelson, C. B. (1995).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2*(12), 1048-1060.

Kilpatrick, D. G., Acierno, R., Resnick, H. S., Saunders, B. E., & Best, C. L. (1997). A 2-year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violent assault and substance use in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5), 834.

Kinney, T. A., Smith, B. A., & Donzella, B. (2001). The influence of sex, gender, self-discrepancies, and self-awareness on anger and verbal aggressiveness among US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2), 245-275.

Kurpius, S. E. R., & Lucart, A. L. (2000). Military and civilian undergraduates: Attitudes toward women, masculinity, and authoritarianism. *Sex Roles, 43*(3-4), 255-265.

Lefkowitz, E. S., & Zeldow, P. B. (2006). Masculinity and femininity predict optimal mental health: A belated test of the androgyny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 95 - 101.

Lengua, L. J., & Stormshak, E. A. (2000). Gender, gender roles, and personality: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diction of coping and psychological symptoms. *Sex Roles, 43*(11-12), 787-820.

Lepore, S. J., Ragan, J. D., & Jones, S. (2000). Talking facilitates cognitive - emotional processes of adaptation to an acute stress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3), 499.

Luxton, D. D., Skopp, N. A., & Maguen, S. (2010).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PTSD symptoms following combat exposure. *Depression and anxiety, 27*(11), 1027-1033.

Lilly, M. M., Pole, N., Best, S. R., Metzler, T., & Marmar, C. R. (2009). Gender and PTSD: What can we learn from female police officer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6), 767-774.

McEwan, T. E., Davis, M. R., MacKenzie, R., & Mullen, P. E. (2009). The effects of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bias on STAXI-2 profiles in a clinical forensic sample. *British Journal of*

www.kci.go.kr

Clinical Psychology, 48(4), 431-436.

McLean, C. P., & Anderson, E. R. (2009). Brave men and timid women? A review of the gender differences in fear and anxiety.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6), 496-505.

McLean, C. P., & Hope, D. A. (2010). Subjective anxiety and behavioral avoidance: Gender, gender role, and perceived confirmability of self-report.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5), 494-502.

Mendelsohn, M., & Sewell, K. W. (2004). Social attitudes toward traumatized men and women: A vignette stud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2), 103-111.

Metcalfe, B., & Dick, G. (2002). Is the force still with her? gender and commitment in the police. *Women in Management Review, 17*(8), 392-403.

Nolen-Hoeksema, S. (1994). An interactive model for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4), 519-534.

Norris, F. H. (1992). Epidemiology of trauma: Frequency and impact of different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on different demographic group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3), 409.

Norris, F. H., Perilla, J. L., Ibanez, G. E., & Murphy, A. D. (2001). Sex differences in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oes culture play a rol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1), 7-28.

Palapattu, A. G., Kingery, J. N., & Ginsburg, G. S. (2006). Gender role orientation and anxiety symptom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3), 423-431.

Pole, N., Best, S. R., Weiss, D. S., Metzler, T., Liberman, A. M., Fagan, J., & Marmar, C. R. (2001). Effects of gender and ethnicity on duty-relate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mong urban police officer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9*(7), 442-448.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Reidy, D. E., Sloan, C. A., & Zeichner, A. (2009). Gender role conformity and aggression: Influence of perpetrator and victim conformity on direct physical aggression in wom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2), 231-235.

Resnick, H. S., Kilpatrick, D. G., Dansky, B. S., Saunders, B. E., & Best, C. L. (1993). Prevalence of civilian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 representative national sample of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6), 984.

Rothbaum, B. O., Foa, E. B., Riggs, D. S., Murdock, T., & Walsh, W. (1992).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ape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455-475.

Sasson-Levy, O. (2003). Feminism and military gender practices: Israeli women soldiers in "masculine" roles. *Sociological Inquiry, 73*(3), 440-465.

Schmaus, B. J., Laubmeier, K. K., Boquiren, V. M., Herzer, M., & Zakowski, S. G. (2008). Gender and stress: Differential psychophysiological reactivity to stress reexposure in the labora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69*(2), 101-106.

Sells, D. J., & Martin, R. B. (2001). Gender and modality differences in experiencing and emotional expression.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35*(2), 176-188.

Spielberger, C. D.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m Y) ("Self-Evaluation*

www.kci.go.kr

Questionnair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Spielberger, C. D. (1988).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Sutker, P. B., Davis, J. M., Uddo, M., & Ditta, S. R. (1995). War zone stress, personal resources, and PTSD in persian gulf war returne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3), 444.

Tolin, D. F., & Foa, E. B. (2006). Sex differences in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quantitative review of 25 years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32*(6), 959.

Valdez, C. E., & Lilly, M. M. (2014). Biological sex, gender role, and Criterion A2: Rethinking the "gender" gap in PTSD.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6*(1), 34.

원고접수일: 2016년 9월 30일
논문심사일: 2016년 11월 3일
게재결정일: 2017년 3월 3일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7. Vol. 22, No. 1, 177 - 198

Effects of Experimentally-Induced Trauma on College Student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Symptoms: Exploratory Studies

Hae-yeon Park Hye-in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s of gender roles on responses to trauma in laboratory settings to explain sex-differences in the prevalence rates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Two studies were conducted and compared to determine the effective experimental stimulus for Korean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gender roles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responses to trauma. A total of 101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raumatic experience was experimentally-induced by using videos that contained materials such as violent crime and terror attack. Individuals' depression, anxiety, aggression and anger were assessed before and after watching the traumatic video. Results from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s revealed that, controlling for biological sex of the participant, gender roles influenced individuals' responses to trauma including both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symptoms.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Responses to trauma, Experimentally-Induced trauma, Gender role, Sex, Undergraduate students

www.kci.go.kr